

# '여행가는 달' 전북 매력에 풍덩

도, 지역여행 프로그램 · 지역축제 · 공연 · 이벤트 운영 · 관광지 · 시설 할인 혜택 제공

전북도가 증가하는 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2022 여행가는 달'에 전북도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추진하는 지역여행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역축제 · 공연 · 이벤트를 운영하며, 전북투어패스 특가 판매, 시티투어버스 요금 및 관광지 · 체험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전북에서 진행되는 지역특화 여행은 '마음챙김을 테마로 익산 '나를 위한 소소한 행복, 익산으로 #별명하러 갈래?', 완주 '이번달은 힐링 코스로 완주', 고창 '습지에서 만나는 밤 닷불과 노르딕 워킹'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지난달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전국적으로 6월 '여행가는 달'이 진행된 가운데, 전북만의 특별 혜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6월 한 달 동안 '완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입장료 무료 혜택과 완주 산속등대 어뮤즈월드, '무주 태권도원' 체험프로그램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내 관광명소를 코스별 · 테마별로 둘러볼 수 있는 전북도 순환관광버스와 익산 · 임실 시티투어버스는 카카오티(T)를 통해 예약할 경우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도 작은축제인 '서화동 갤러리길 미술 축제(6.4.~6.29)', '부안 유유참뽕축제(6.10.~6.11.)' 등 시골마을 작은축제도 개최돼 전북에서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15일(3일간)까지는 전북

의 주요 관광지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카드(1/2/3일 통합권)를 온라인 판매 채널 '위메프'를 통해 20~30% 할인된 특가 판매로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여행가는 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북도탈관광홈페이지, 도와 시 · 군 SNS 채널, 도내 전광판 등 온 ·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운동목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에서의 여행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길 바라고, 이번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계기로 다시 여행을 일상화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상품과 매력 넘치는 여행명소를 발굴해 가을철에 전북만의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담판'

국립민속국악원, 8 · 15 · 22일 총 3회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6월 8일(수), 15일(수), 22일(수) 오후 3시, 국립무형유산원 열우마루 소공연장에서 총 3회에 걸쳐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담판'을 선보인다.

담판은 명창의 판소리를 듣고 그 의미와 사실을 알아보는 무대로, 진행은 국립민속국악원 왕기석 원장과 원기중 국문학 박사가 맡았다.

첫 무대인 6월 8일에는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인지라'는 주제로 '삼고초려 대목'과 '박광과 전두대목'을 윤진철 명창(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의 소리와 윤진진 교수(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의 무대로 만난다.

두 번째 무대인 15일에는 '누구를 위한 전광인가'라는 주제로 '군사실용 대목'과 '조지룡 활 쏘는 대목'을 강길원 명창(국립남도국악원 단원)과 김태영 교수(제37회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 수상)의 무대로 만나고, 22일(수)에는 김경호 명창(진도군립민속예술단 감독)과 조용안 교수(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가 출연해 '해, 죽음은 우리 뭇인가?'라는 주제로 '적벽대전'과 '관운장 조조 놓아주는 대목'을 선보인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전석 무료)로 진행하며, 공연 7일 전부터 국립민속국악원(063-620-2329)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도, 제9기 관광모니터단 모집

전북도는 도내 관광지, 관광지원에 대한 홍보 및 방문객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광서비스 질의 향상에 앞장설 '제9기 관광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관광모니터 30여명으로 전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제9기 관광모니터는 오는 7월 1일을 시작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도내 관광지 이용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제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선발된 관광모니터는 전북도 투어패스, 축제,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분야를 모니터링하고, 관광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관광지 온라인 홍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제보 건수에 따라 소정의 보상을 지급받으며, 관광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제보실적이 우수한 자는 도지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청년층 관광모니터 확충을 위해 도내 대학들에 협조요청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가 높은 대학(원)생 모니터 요원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관광모니터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SNS, 블로그, 페이스북 등) 홍보와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모니터링 제보 투트랙(two track) 운영으로 MZ세대 관광객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제9기 관광모니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지원서를 받아 오는 15일까지 이메일(ttl159@korea.kr)로 제출하고, 관광모니터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관광모니터 담당자에게 문의(280-2708)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30일이며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지한다.

/유호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에서는 지난달 28일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퓨전 국악단 '비단'을 초청해 무료 콘서트를 진행했다.

## JB문화공간서 '퓨전 국악 콘서트' 열려

### 퓨전 국악단 '비단' 초청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에서는 지난달 28일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퓨전 국악단 '비단'을 초청해 무료 콘서트를 진행했다.

여성 5인조 퓨전 국악그룹 '비단'은 음악 및 영상 콘텐츠로 한국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을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날 비단은 신라 화랑을 알리는 '비림의 약속', 한복을 주제로 하는 '허니 이리랑', 불국사를 노래한 '파랑새의 꿈' 등 창작곡 외에도 유명

영화음악과 가요 등을 국악기로 연주하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흥겨운 무대를 펼쳤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 가족은 한복을 차려입고 콘서트가 열리는 JB문화공간을 찾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좋은 공연을 보게 되어서 이번 전주 여행은 어느 때보다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JB문화공간의 회원 가입 및 프로그램 신청은 홈페이지와 JB문화공간 담당자(063-288-7797)를 이용하면 된다. JB문화공간 회원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대관, 강연 및 공연의 우선 참여 기회 제공, JK카페 50%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 '어서와, 입점리 고분은 알고 왔지?'

익산시 ·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생생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추진

익산시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시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생생문화재 사업 대표 프로그램인 '어서와, 입점리 고분은 알고 왔지?'를 진행한다.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돼 진행되는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역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적 · 물적 자원과 결합해 교육, 공연, 체험 등의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이다.

시는 '어서와, 입점리 고분을 알고 왔지?', '금강따라 뱃길따라 역사문화 한바퀴', '백제 사람들은 어디에 묻혔을까'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어서와, 입점리 고분은 알고 왔지?'는 입점리 고분 현장을 둘러보고 고고학 전문가에게 설명을 듣고 드론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금강따라, 뱃길따라 역사문화 한바퀴'는 금강 유역에 분포하는 문화유산 탐방과 성당포구 뱃배체험으로 금강 유역 익산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백제 사람들은 어디에 묻혔을까?' 프로그램은 금강문화유산지도 큐브 만들기, 3D펜을 활용한 금동신발 만들기 등 학생들의 흥미를 돋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달 한 달 동안 지역 초등학교(8개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웅포면에 위치한 입점리 고분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등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금동신발, 금동관모, 중국제 청자 등이 출토된 백제 고분으로 5세기 당시 익산 지역에 있었던 백제문화의 수준과 가치를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하여 입점리고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활용도가 낮았던 문화재를 대상으로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본 프로그램의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063-850-556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